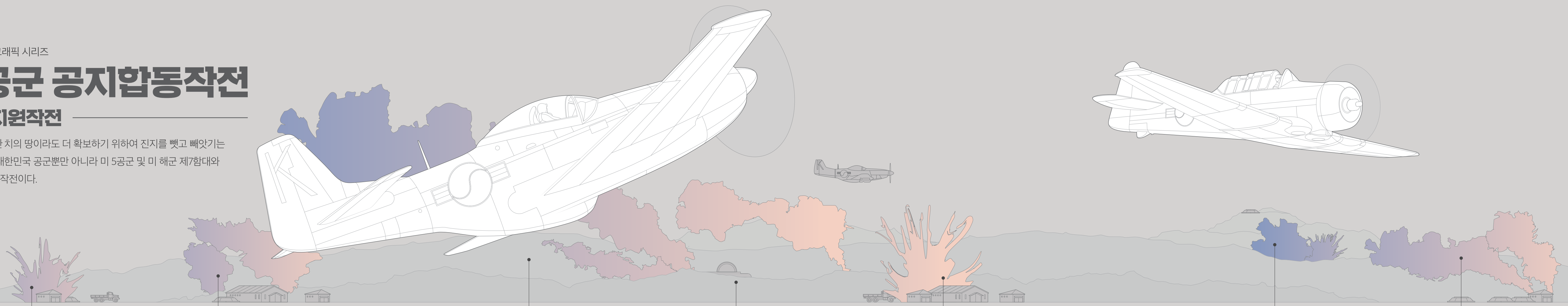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570 6·25 전쟁 70주년 공군사 인포그래픽 시리즈

대한민국 공군 공지합동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휴전협정을 앞두고 북한군과 아 육군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진지를 뺏고 빼앗기는 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상군 작전에 대한민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 5공군 및 미 해군 제7함대와 연합으로 수행한 최초의 대규모 공지합동작전이다.



1952년까지
동해안지역의 감제고지

강원도 고성 남쪽의 월비산으로부터 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로, 동해안지역으로 침투하는 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이 감제고지였다.

인근에는 원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어 교통의 요지였다.

10월 28일 – 12월
공군 공지합동작전 시작

10월 28일 351고지 및 339고지에 북한군 제7사단이 공격을 가함에 따라 4대의 F-51D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여 적 벙커를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11월에는 112소티, 12월에는 212소티를 출격시켜 적의 기동로를 차단하고 벙커, 보급품집적소 등을 파괴하였다.

1953년 1월
보급로 차단작전

1월에는 장전, 통천, 세포리와 서부전선의 사리원, 신천일대의 보급품집적소 및 병력집결지를 공격하고 철도를 차단하였다.

고성 이남의 월비산과 351고지 등에 대한 아 지상군 지원 근접항공 임무로 152소티를 출격하였다.

2월 – 3월
적 후방차단을 위한 작전지원

2월 14일까지 아 지상군 지원작전에 총 132소티를 출격하였고,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15일 이후부터 간성과 고성일대에 총 189소티를 출격하였다.

3월에는 고성일대의 지상군 전투지역에 258소티를 출격시켜 지상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3월 26일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북한군 제7군단은 351고지 점령을 위한 공격이 아군의 방어로 불가능해지자, 후방 기습을 목적으로 동굴을 뚫어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26일, 공군 4개의 편대가 약 30분 간격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제15사단이 방어하던 351고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4월 – 5월
공지합동작전 수행

4월에는 512소티를 출격하여 고성, 금성, 안변 일대의 적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였다.

5월에도 고성 일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과 후방보급로 차단작전을 병행하여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6월 2일 – 7월
351고지 함락 및 공격

6월 2일에는 북한군 제7사단이 351고지 주변 구릉에서 사격을 가하였다. 공군은 4개 편대가 근접지원작전을 실시했으나 351고지가 적에게 함락되었다.

북한군은 아 육군 제15사단과 대치한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고, 공격 지원을 위한 출격작전을 감행하였다.

7월 17일 – 27일
지속적인 아 지상군 지원

17-18일, 23-24일에는 적의 공격에 따라 월비산과 태봉리 지역 등에 출격하여 벙커 및 박격포 진지를 파괴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27일까지 교전중인 아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총 15개 편대가 출격하여 적 벙커 및 야포진지를 공격하였다.

7월 27일 이후
공군 공지합동작전의 성과

휴전이 성립되는 순간까지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지상군의 사기앙양과 적의 전세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미군과 육·해·공군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의 결과, 현재 38도선 북쪽인 설악산과 속초지역 및 거진·간성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 월간 공군 편집실 디자인 상병 김현준 감수 공군역사관리기록단

351고지 중심의 주요 전투지역

351고지는 감제고지로, 근방에 원산에서 강릉까지의 해안도로가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써 전략적 가치가 높았다. 감제고지란 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 보이는 고지를 말한다.

6·25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의 공지합동작전 기간

1952년 10월 28일, 강릉전진기지의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적 보급로 차단작전과 병행하여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보급로 차단작전은 마오쩌둥이 지원하는 각종 군수물자들이 전선의 적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전이었다. 우리 전투 조종사들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까지 기상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출격을 감행했다.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출격 타임라인 (3월 26일)

표적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점, 아군 오폭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지만, 351고지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에 출격한 16명의 조종사 전원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단일작전에 참가했던 전 조종사가 무공훈장을 수상한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10시 10분	10시 10분
포사격 제압	마킹사격
전방항공통제관(FAC)이 1군단 화력지원본부에 지원요청	공중통제기 **T-6 모스키토**

10시 20분	10시 35분	11시 00분	11시 35분
1편대장 (Blue) **윤응렬 소령**	2편대장 (White) **이기협 소령**	3편대장 (Green) **옥만호 소령**	4편대장 (Black) **김금성 소령**
황정덕 중위 유치곤 대위 김필정 중위	최성달 중위 현창건 중위 조항식 중위	천영성 중위 박용만 중위 최순선 중위	권찬식 중위 임상섭 중위 전형일 중위

마킹사격에 사용된 건국기 T-6 모스키토

1950년 3월 캐나다에서 도입한 2인승 연습기이다. 애국기헌납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T-6기는 국가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건국기' 라고 총칭하였다.

1950년 한국 공군에 F-51D 전투기가 들어옴에 따라 전투임무에서 해제되었다. 그 후 주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무전기와 연막 로켓탄을 싣고 전방항공통제기(FAC)로 운용되어 정찰과 대지공격에 사용되었다.

351고지 · 고성지구 출격 전과 및 손실내용

개요

출격 기간	1952년 10월 28일 - 1953년 7월 27일
출격 소티	1,538소티

전과

벙커	736개소	우마차	25대
보급품집적소	509개소	화물차량	16량
군용건물	470동	주보급로	15개소
적살상	287명	고사포진지	12개소
박격포진지	179개소	탄약저장소	11개소
야포진지	158개소	철교	8개소
동굴	101개소	탱크	4대
자동화기진지	62개소	교량	4개소
철도	47개소	기동로	3개소
기관총진지	35개소	터널	3개소
트럭	31대	전차	1대
산병호	28개소	교통호	1,500m

손실

F-51D 전투기	8대	조종사	6명

최종성 임택순 장창갑 서동규 김현일 고광수

62570 DESIGN HYEON JUN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